

## 與, 이재명 '대세론' 형성할까 ... 野, 보선 승패따라 '요동'

### 대통령 선거 D-1년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20년 집권론'의 대망을 그리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정권 탈환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일단, 7일 기준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일단 여론 잠룡들의 성적표가 야권보다 우세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위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체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4·7 재보선 결과와 함께 대선 레이스가 가열되면 지금까지

이낙연 지지율 반등할지, 정세균 제3후보로 부상할지 여부 '주목' 야권 윤석열 역할에 관심 ... 정계개편 방향따라 다자구도 될수도

정중동의 모습을 보였던 차기 대선 구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문 진영의 반감과 '포플리스트'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대세론을 형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권에서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제3후보론'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경선이 가열될수록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전선이 형성되며 분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일부에서 이 지사의 탈당을 계속 제기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과연 지지율 반등에 성공해 여권의 대선 티켓을 거머쥘 것인지도 관심사다. 대선 출마를 위해 9일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 대표에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여부가 승부처로 꼽힌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재명·이낙연 구도가 뒤트릴 경우 제3후보로 언제든지 부상할 수 있다. 특히, 친문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이 '반민주당' 정서 결집 역할을 한다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동력도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나 개헌 논의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대선 정국까지 이어진다면 양극화 해소와 복지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 및 백신 접종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여권에는 호재가, 반대의 경우에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치명적 약제가 될 수 있다. 물 밑에서 머물고 있는 개헌 이슈도 폭발성이 크다. 정파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권력 분산형 개헌론이 불거질 경우, 1987년 양김(兩金) 분열로 고착된 지역주의 정치 지형 자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야권 재편 등 정계개편 방향에 따라 다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총결집해 양자 구도로 치러진 적은 2002년(이회창-노무현), 2012년(박근혜-문재인) 두 번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선 중도층에 기반을 둔 '철석연대(안철수+윤석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야권이 대선 직전, 극적인 후보단일화로 정권 탈환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일선 검사들과 현장 소통 해 나갈 것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 내겠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일선 검사들과 솔직담백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도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현장 소통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검사들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1차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과의 관계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이었다”면서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날로 첨단·지능화 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여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수사 관련 종사자들의 토착 비리 등을 누가 엄정한 잣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평검사와 간담회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관련 법안은 아직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결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 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

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 안착”이라며 “현재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점검 간 사건 이첩 관계, 보완수사 요구 관계 등 현실이 어떤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고검 방문에 앞서 KBC 광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주말과 휴일 길이 속고 있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평검사 간담회에 앞서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 간부진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박 장관의 광주 방문에 이정수 검찰국장도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박 장관은 광주고검 방문 전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박 장관은 묘역 방문록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적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매화향기 그윽한 광양 7일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피어난 매화를 보며 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광양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 백신 접종 광주·전남 3만명 육박

### 이상반응 180건 ... 모두 경증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에서도 3만명에 육박하는 시·도민이 1차 접종을 맞았다. 지난달 26일 접종을 시작한 지 9일 만이다. <관련기사 2면>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광주 1만3421명, 전남 1만6014명 등

총 31만 4656명(평균 접종률 41.2%)이다. 지난 6일 하루에는 1만 7131명이 추가 접종했다. 국내 인구(5200만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61% 수준이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30만 9387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5269명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1차 접종 대상자 2만 7916명 중 1만

3421명이 접종을 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8.1%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3만 6715명 중 4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시도별 누적 접종률을 보면 경남이 55.9%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충남(49.5%), 광주(48.1%), 충북(47.8%) 등의 순으로 높다. 광주에선 AZ백신 접종자 관련 이상반응은 58건이며, 모두 발열과 근육통, 국소 알러지 반응 등 예방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으로 집계됐다. 아직 화이자백신 이상 반응은 없다. 전남은 122명이 이상 신고를 보였으며, 발열 64건 등 모두 경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 육해공이 막혀	▶3번
광주경찰 임형순차 함께 타 보니...	▶6번
광주대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18번

**2weeks**  
고함 고함! 2주간 주름 잡는 힘! 2주간 주름 잡는 힘!

IOPE LAB

## 슈퍼레티놀

###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4주간 임상시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